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책무성 관련 이용자 보호 쟁점 논의

- 방통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8차 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은 제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위원장 이원우, 이하 ‘민관협의회’)의 8차 회의를 6월 29일(목)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김경운 솔루션 아키텍트 매니저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AWS의 사업 전략 등을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은 유해 데이터 사전 탐지 및 제거, 부적절한 콘텐츠(혐오표현, 폭력 등) 입력 거부 및 출력 필터링 등 인공지능 기반 모델에서의 책무성(accountability) 제고를 위한 AWS의 주요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민관협의회에서 인공지능 기반 모델의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제언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정부 등 총 30여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알고리즘 저널리즘 시대의 이용자 보호 방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 쟁점’ 등을 다루었으며, 앞으로도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보호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신영규 (02-2110-1510)
	이용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성 (02-2110-1475)